

매 출 액 : 3조 1,920억원 | 설립년도 : 1973년 8월 | 종업원 수 : 26,101명 | 주생산품 : 기판, 칩부품, 정밀모터, 파워, 모바일 RF, 디지털튜너, 광반도체, 네트워크모듈, 백라이트유닛, 카메라 모듈 등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314번지

CASE

01 상생형 PMS 우수사례

모기업과 협력사의 성과 공유로
상생의 기반 마련

협력사 제조경쟁력 선진화 위해 PMS 추진

삼성전기(주)는 2007년 5개 협력사에 대한 1차 상생형 PMS 인증사업 이후, 협력사의 Global 제조경쟁력 향상이라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2008년 주요 협력 3개사, 2009년 주요 협력 4개사, 2010년 주요 협력 4개사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제조경쟁력 선진화 달성을 목표로 매년 PMS인증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 등 외부 기관과의 협력 활동과 성과공유 기반을 바탕으로 PMS 인증을 획득하는 한편, 협력사의 공정자동화를 통한 소인화와 신규 개발과제 양산화 연계 등의 생산성향상과제를 진행하였다.

경영생산성과 제조생산성향상에 주목

삼성전기(주)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요 협력사의 PMS(5개 분야 9개 범주)를 진단, 심사하였고, 제조생산성 향상을 위해 '금형, 자동화, S/T, TPM 등'에 대한 개선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각 협력사별로 혁신리더(시니어, 주니어)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협력사의 취약 및 지도 요청 분야에 한국생산성본부의 전문컨설턴트를 투입하여 OJT컨설팅을 실행하는 한편, 모기업의 컨설팅 인력을 투입해 성과공유형 종합생산성 향상 과제 및 애로기술에 대한 지원을 펼쳤다. 2007년부터 삼성전기의 PMS 프로그램에는 총 16개의 협력사가 참여했고, 협력사 부담금도 모기업인 삼성전기(주)에서 전액 지원하였다.

◆ 상생협력 PMS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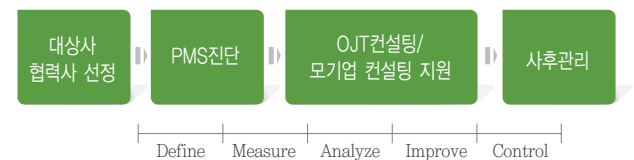
협력사 참여확대를 통해 동반성장 달성

삼성전기(주) 박종우 사장은 "PMS 추진은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협력사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전기(주)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과제의 성과를 점검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개선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내년에는 협력사에 컨설팅 수요조사와 결과보고회를 통해 전략 협력사들의 PMS 참여를 유도하여 상생형 PMS 인증사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까지의 PMS 추진을 통해 나타난 효과 및 개선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협력사 경영 혁신을 위한 핵심 관리 기술 Tool 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PMS 추진목표 및 계획

	'07년 ~ '08년	'09년	'10년
OJT컨설팅/교육 (KPC)	진단 취약 및 지도 요청 과제	지속 혁신 체계 구축 및 F/up	
생산성 향상 (당사 컨설팅G)	성과공유형 개선과제	종합 생산성 향상 컨설팅 지원	
협력사 자체 혁신 인력	인력 양성을 통해 혁신과제 자체 수행 (각 사별 시니어 1명, 주니어 5명)		

◆ 상생형 PMS 추진 프로세스



◆ PMS인증 참여 소감

삼성전기(주) 대표이사 사장 박종우

PMS 추진은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혁신을 유도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모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대상의 확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